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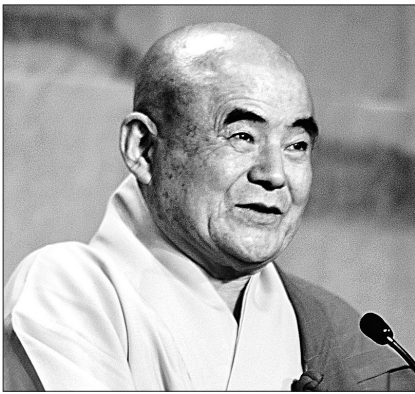
2월 25~28일 강원도 하이원리조트 컨벤션홀서 성황리에 폐막한 '2016세계명상대전'. 지난호 아산브람 법문에 이어 이번호에는 해국 스님 법문과 아산간하(태국)의 질의응답, 심도선사(대만) 법문을 순서대로 실었다.

〈편집자 주〉

2016세계명상대전 법문 지상중계

해국 스님 · 심도선사 · 아산간하

언어는 달라도 佛法은 하나다



해국 스님

는 것입니다. 바로 내 성질 같들이기입니다. 56년간 살아오면서 수행한 방법을 볼 때 간화선은 과거 생각에도 끌려가지 않고, 미래 생각에도 끌려가지 않은 채 전후좌우가 막막한 그저 모를 뿐인 상태일 때가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인생을 다 바쳐 중생을 위해 걸어가는 저 스승이 왜 그런 되지 않는 말을 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어째서 뜰 앞의 잣나무라고 했을까' 하고 말이죠. 처음에는 생각으로 내가 있고, 잣나무라고 한 스승이 있고, 그런 생각을 해가다가 오직 모를 뿐인 게 깊어지고 깊

“우리 본질 공성 연기법은 본래 청정해 허망한 생각만 놓아버리면 그대로 부처다”

어지다 보면 의심하는 나와 보는 대상,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닌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깊어지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던 모든 것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즉 그 생각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사라지면서 나는 없어지고 연기법만이 광명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간화선에서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

'내가 본래 부처'입니다. 본래 공성이 내 본질입니다. 그 공성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온갖 잡념, 번뇌망상, 원망하는 마음만 놓아버리라고 합니다. 있는 것을 놓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번뇌망상이 나인 줄 아는 착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모를 뿐인 청정이 되면 집착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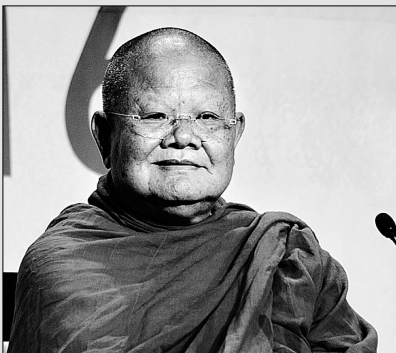
그것을 우리 한국의 스승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기에, 공을 보여줄 수도 없기에 '뜰 앞의 잣나무'라고 한 것입니다. 오직 제자들로부터 하여금 막막해서 생각에 휘둘리지 않도록 오로지 일념으로 걸어가는 방법을 화두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간화선에서는 태어나도 태어난 바가 없고 죽어도 죽은 바가 없습니다.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은 우리 허망한 생각 속에만 있습니다. '우리 본질 공성 연기법은 본래 청정해서 다만 허망한 생각만 놓아버려라, 그대로 부처이니라.'

그래서 부처님 연기법과 간화선 스승들이 보여주시는 화두법은 둘이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 교회를 다녔는데 모든 중생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고민했습니다. 자라나서 부처님 법을 알고 죄란 우리들의 습관(업)을 의미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의 본질은 죄에 물들지 않습니다. 허공에 풍물을 끼얹어도 분지 않습니다. 텅 빈 허공에는 어떤 더러움도 물들지 않듯이 우리 마음만 비워버리면 마음의 본질은 죄에 물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허망한 번뇌망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에 오직 모를 뿐입니다. 참모름이란 것은 허망한 마음에도 머물지 않고 진리라는 진리에도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는 자리에도 머물지 않으니 이때 한 생각 생각 모든 것은 진리 아닌 게 없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찾을 게 따로 없다든지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진 자기 생각에 크게 속는 것입니다.

아산간하 질의응답



아산간하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인간의 본성은 선행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는 전생으로부터의 좋은 것 나쁜 것을 모두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생에서 계속 좋은 일을 해서 과거생으로부터 가져온 나쁜 습관을 없애야 합니다. 바로 지혜와 알아차림을 통해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명상할 때 시간이 지나면 편안함보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가만히 앉아 있고 싶은 욕망도 갖지 말고 답답함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욕망도 버리십시오. 우리의 고통은 이런 욕망에서 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혼잡한 교통에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스

무언가 바라고 명상하지 말라 모든 고통은 욕망서 비롯된다 내 행동 보고 지금에 집중하라

트레스는 더 빨리 가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면 더 부자가 되길 원하고, 못생겼으면 예뻐지고 싶어 하고, 아프면 빨리 낫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얻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이런 모든 욕망, 바람들은 결국 우리의 가슴에 해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스스로의 욕망을 볼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알아차림을 매 일상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욕망에서 오는 모든 고통을 끊을 수 있습니다. 지혜와 알아차림 갖추고 과거에도 미래에도 집중하지 말고 지금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셔야 합니다.

▲자살하면 지옥에 떨어져 아귀, 축생, 아수라로 태어나나요?

그렇습니다. 진실입니다. 자살하고자 한다면 이미 자살하기 이전부터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과 지혜가 있다면 마음이 고요해져서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마음을 바라보고 고요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고요함과 평화를 기르도록

노력하십시오. 언젠가는 웃는 마음이 됩니다. 늘 자비심을 기억하고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회라고 보십시오. 알아차림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입니다.

알아차림과 지혜를 갖추면 마음이 지금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늘 과거만 보는 사람은 썩은 음식을 먹는 사람과 같습니다. 분노나 질투, 질투는 오래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속에 알아차림과 지혜가 있다면 그것이 곧 선(善)입니다.



심도선사

대원을 세우고 유리광정도를 이루셨죠. 석가여래께서도 500대원을 세워 사바정도를 이루셨습니다. 사바세계에서 극락세계까지는 100만여

개의 국토를 지나야 합니다. 그 극락세계는 환상이고 허구적인 세계가 아니라 한은하게입니다. 부처님은 위대한 원력으로 불국정도를 이루셨고, 그것은 바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불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흔히 두 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열반 증득해서 생사해탈을 추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발보리심해서 극락정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이루기 위해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세생생 몸을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보리심을 내 차츰차츰 이어나가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불법을 배우는 것은 불생불멸 마음의 본질을 증득하기

위함이고, 여기에는 끊어지지 않는 원력과 발보리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배우는 것은 일시적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과 몸과 생각, 바로 3가지 신구의를 어떻게 관리하고 경영하느냐에 따라 부자와 같은 삶이 되거나 가난한 삶이 될 것입니다. 본인의 선업과 악업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맞춰 궁극적으로 인생을 운영해나가다 보면 무아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은 곧 자비행의 생활화가 됩니다. 그래서 복덕과 지혜를 갖추 중생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무상미묘법입니다. 우리가 성불하기까지 신심을 뉘세사키지 않고 굳건하게 매진해나가야 합니다.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 (49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6년 4월 6일(수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녹음 CD 우송)

2. 교육내용

- ① 송 주 편 (도량식, 조석중성 등)
-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 ③ 헌 공 편 (삼보통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칭, 각종 불교의식 등)
- ④ 제 의식 편 (천도제, 49제,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용법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02)733-1959
720-1836

개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전국 지사 모집

- 15년의 노력을 통하여 탄생된 운영상담 / 간단히 입력을 마치면 즉시 상담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 학생들에게 학과선택, 효율적 학습법, 좌,우뇌발달, 진학년도 성적여부, 학교예측, 부모 명예 중 발달 분야 성인에게 적성에 맞는 직업안내, 언제 재물 또는 목적실현이 될 지 그래프를 보여 상담이 진행된다. (학생 3,500명, 성인 2,500명 대상, 연구하여 완성된 프로그램)

지사 운영 대상

- 종교인(스님), 교육분야, 상담심리사, 철학인, 직업상담사
- 직업이 필요한 분을 위한 프로그램!
- 다문화 가족(한국어 능통자 환영)
- 학생용(남,여) · 성인용(남,여)
- 프로그램 관련 문안은 직접 방문하시면 상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 강의 안내 : 매주 화 · 목요일 명리학 강의



비전

- 입력 즉시 인생 전반에 걸친 자료 나온다.
- 부모관계, 배우자관계, 자식관계, 형제관계를 한눈에 보고 판단해준다.
- 어떤 성격을 지녔고 어떤 직업을 갖어야 좋은가를 알려준다.
- 언제 형편이 좋아지고 언제 흉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려준다.
- ※ 궁금하신 분은 연구실에 방문하여 경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주민번호에 숨겨진 나의 직업에 대한 프로그램 오픈 예정

프로그램 유형

생년월일 입력	설문응답	설문응답(재학생)	숫자에 얽힌 운세		
[고객 기초 정보 입력]	기초 정보 입력	기초 정보 입력	기초 정보 입력		
종 류 학생 () 성인 ()	종 류 학생 () 성인 ()	종 류 학생 () 성인 ()	종 류 학생 () 성인 ()		
이 름	이 름	이 름	이 름		
성 별 남 () 여 ()	성 별 남 () 여 ()	성 별 남 () 여 ()	성 별 남 () 여 ()		
생년월일 년 월 일 시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윤달여부 네 () 아니오 ()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쌍둥이 네 () 아니오 ()					
핸폰번호	안 내	다 음 한 문항에 하나씩 체크하십시오. 체크가 끝나면 바로 자료가 출력됩니다.	다 음 한 문항에 하나씩 체크하십시오. 체크가 끝나면 바로 자료가 출력됩니다.		
이메일				다 음	다 음
내신등급				다 음	다 음
검사하기 평생운 () 1년 신수 ()					

※생년월일 입력시 16장 출력 ※1년 신수 5장 출력 ※설문응답 15장 출력 ※숫자에 얽힌 운세 5장 출력 ※주민번호에 의한 후천직업 5장 출력

오시는 길 : 총신대(4,7호선) 5번 출구 → 200m (진로적성평량상담소) 401호 미래예측학 박사 안성재 문 의 : H·P 010-5418-5972